

데 스틸의 조형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패션디자인 연구

박현정·김혜경*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학과 박사과정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데 스틸은 20세기 기계, 산업 시대의 개막과 함께 영향력 있는 예술사조로 인정받으며 회화뿐만 아니라 가구, 건축, 공예, 조각, 패션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실용적인 디자인을 추구했던 시대상의 요구에 맞춰 발전해온 데 스틸은 현재까지도 컬러 블로킹 기법으로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조형적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서 확고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 스틸의 조형성에 컬러 블로킹 기법을 응용하여 컨템포러리한 여성복 디자인 4벌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데 스틸의 개념 및 대표 작가와 작품세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컬러 블로킹 패션디자인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하여 도출한 데 스틸의 조형적 특징은 컬러 절제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그리드를 응용한 컬러 블로킹,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으로 총 3가지이다. 컬러 절제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의 표현 방법으로는 삼원색과 삼무채색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또는 시즌 트렌드 컬러를 새로 추가하거나 유사한 톤의 컬러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배색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드를 응용한 컬러 블로킹은 과거와 동일하게 수직선과 수평선의 단순 교차 및 반복을 통한 비례미를 표현하고 있으나, 시즌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패브릭을 접목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은 점, 선, 면의 순수한 도형 요소의 조합을 활용한 대칭 또는 비대칭적인 색면 분할과 자유로운 패브릭 블로킹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데 스틸의 조형성을 컬러 블로킹 룩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데 스틸의 조형 원리를 트렌디한 패션 디자인으로 재해석 하였다.

주제어 : 데 스틸, 조형성, 컬러 블로킹, 패브릭 블로킹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김혜경, hestia19@naver.com

접수일: 2017년 1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7년 3월 8일

I. 서론

동시대의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온 패션은 융합적인 조형 언어로서 건축, 공예, 문학, 조각, 회화 등 각 시각 예술 영역간의 표현양식을 차용하며 유기적인 형태로 그 표현 영역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근대 과학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에는 재현에 그치던 구상주의 미술이 소멸하고, 점차 추상미술로 예술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에 새로운 조형 양식으로 등장한 데 스틸(De Stijl)의 조형 이념은 산업화된 현대 사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하학적 추상 미술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Park(2016)에 따르면, 1965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에 의해 본격적으로 패션에 도입된 데 스틸의 조형 양식은 현재까지도 많은 국내외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컬러 블로킹(color blocking) 기법으로 재해석되어 기하학적이고 모던한 조형적 미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데 스틸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건축, 도자, 사진, 텍스타일, 회화 등에 관한 연구가 존재할 뿐, 아직까지 컬러 블로킹을 데 스틸의 조형성에 접목한 학술 연구 및 패션디자인 작품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데 스틸의 조형성이 갖는 미적 특징을 고찰하여 최종적으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컬러 블로킹 룩을 제시하는데 있다. 국내외 대다수 디자이너들에게 지속적인 예술의 영감으로 회자되고 있는 데 스틸의 개념 및 대표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고, 컬러 블로킹 패션디자인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컬러 블로킹 기법의 근원이 되는 데 스틸 양식간의 상호연계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어서 데 스틸 양식에 컬러 블로킹 기법을 접목한 패션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 분석과 자료 수집을 위해 국내 학위논문, 학회지, 디자인 전문서적,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바탕으로 데 스틸과 컬러 블로킹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데 스틸의 대표 작가로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테오 반 도스부르크(Teo van Doesburg),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Rietveld) 3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여 데 스틸의 조형성을 컬러 질체성, 그리드, 기하학적 면 분할로 총 3가지로 도출하였다. 사례연구의 범위는 컬러 블로킹이 패션 트렌드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1년 S/S 시즌부터 가장 최근 발표된 2017년 S/S 시즌까지의 4대 컬렉션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패션 전문 사이트 및 패션 트렌드 칼럼을 바탕으로 총 320점의 컬렉션 의상을 추출하였고, 2차적으로 데 스틸의 대표 작가와 작품, 컬러 블로킹 패션 컬렉션을 기준으로 설정한 3가지 조형성에 따라 자료를 재분류하였다. 셋째, 데 스틸의 조형적 특징 분석과 컬러 블로킹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총 4벌의 컨템포러리한 여성복을 실물 제작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데 스틸의 개념

‘데 스틸’은 네덜란드어로 영어로는 ‘양식(the style)’을 뜻한다. 데 스틸 용어의 어원은 고트프리트 켐퍼(Gottfried Semper)의 『Der Stil in den technischen und tektonischen Künsten oder Praktische Ästhetik』에서 유래한다(Yoon, 1994).

그림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데 스틸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양식’의 창조에 있었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양식(universal

style)’을 의미하는 것이었다(Yoon, 2011). 이렇듯 보편성을 추구했던 데 스틸 그룹은 첫 번째 선언문에서 “시대정신에는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있다. 낡은 것은 개인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것은 보편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예술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함축하는 바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표명했다(Yoon, 2010, p. 274).

데 스틸은 1917년부터 1931년까지 발행된 잡지이자 동명의 예술사조이며,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로 정의된다. 데 스틸 그룹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몬드리안, 반 뒤스부르크, 리트벨트 등의 가구 디자이너, 건축가, 화가를 주축으로 형성되었다. Lee(1995)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네덜란드에는 많은 예술가들의 체류가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예술가들은 네덜란드에 체류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시각 환경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운하, 제방, 풍차의 수직과 수평적 요소들은 데 스틸 운동의 미학 원리인 수직, 수평에 의한 기하학적 단순성과 많은 관계를 갖게 하였으며, 이는 곧 데 스틸 운동의 반자연적인 이념과 추상 표현을 추구하게 된 시금석이 되었다고 하였다.

급속도로 산업화된 시대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왔으며, 대중들은 점점 기계적인 정확성과 규칙성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조형양식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데 스틸의 멤버들은 객관화, 단순화, 탈자연화를 지향하며 최소한의 조형 요소와 색채를 사용하여 회화 양식에 일정한 법칙을 도입한 ‘신조형주의(Neo plasticism)’를 완성시켰다.

‘신조형주의’의 어원은 네덜란드어인 ‘Nieuwe Beelding’으로써 스크마크스(M. H. J. Schoenmaekers)의 ‘Het nieuwe wereldbeeld’으로부터 채택하였다. 월간미술에 따르면 이는 그의 첫 출판물이자 1917~1918년에 11회에 걸쳐 데 스틸 잡지에 연재된 ‘회화에서의 신조형주의(De Nieuwe Beelding in

de Schilderkunst)’에서부터 사용되었다(Neo Plasticism, n.d.).

몬드리안은 신조형주의의 일반원리를 “첫째, 조형적인 수단은 직사각형의 평면과 프리즘에서 나온 삼원색, 그리고 세 가지 무채색이어야 한다. 건축에서의 빈 공간은 무채색, 즉 색채로 보자면 비자연적인 물질로 간주된다. 둘째, 조형 수단인 크기와 색채는 등가성이 필요하다. 색채와 크기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조형적 수단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평형상태는, 색채 혹은 물질의 비교적 작은 영역과 무채색 혹은 비어있는 거대한 공간의 대립을 의미한다. 셋째, 이원적 대립이 조형적 수단에서 필요하듯이, 그것은 구성에서도 요구된다. 넷째, 지속적인 평형상태는 위치 관계에 의해 성취되며, 가장 중요한 직각의 대립 속에서 직선은 순수 조형의 수단의 경계에 의해 표현된다. 다섯째, 조형 수단을 중립화하고 소멸시키는 평형상태는 비례의 관계들을 통해 성취되며, 그것들은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생생한 리듬을 창조한다. 여섯째, 자연주의적인 반복, 대칭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정의했다(Mondrian, 1986/2008, p. 140).

이렇듯 몬드리안을 포함한 데 스틸 그룹의 구성원들은 작품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극단적인 추상의 형태를 지향하였다. 다시 말해 레드, 블루, 옐로우의 삼원색과 블랙, 그레이, 화이트의 삼무채색으로 컬러의 사용을 엄격히 절제하고, 선의 사용도 수평선과 수직선 두 가지의 직선으로 제한하여 작가 개인의 개성보다는 인공적인 조형미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데 스틸 그룹은 산업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미적 기준을 완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데 스틸 그룹은 2차원의 회화에서 그치지 않고 가구 디자인, 실내디자인, 건축과 같이 인간의 실제적인 체험이 가능한 3차원의 영역까지 신조형주의의 원리를 적용하며 모더니즘적인 디자인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2. 데 스틸의 작가와 작품

1) 몬드리안

데 스틸 운동을 주도하며 신조형주의 이론을 완성시킨 몬드리안은 “인간을 세포로 분해할 수 있듯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는 점, 선, 면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Park, 2015, p. 12).

그는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대표 연작인 『Composition』을 발표하였다. <Figure 1>은 신조형주의의 색채 원리를 철저히 따르고 있는 작품으로 순수함과 절제성이 매우 돋보인다. 거대한 레드 컬러의 사각형과 그 외의 사각형들의 균형을 풀어짐과 당겨지는 리듬으로 공간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팽창과 당겨지는 리듬은 블랙 컬러의 선들로 조율된다. 중심으로 당겨지지 않고 밖으로 팽창하는 구성으로, 레드 컬러의 사각형은 블랙 컬러의 선들이 없으면 마치 화면 밖으로 계속 연장되는 것처럼 보여 확산되어 교감하는 느낌

을 주고, 이로써 새로운 공간 개념을 갖고 있다 (Park, 2011).

<Figure 2>는 짧은 레드 컬러의 직선들이 긴 블랙 컬러의 직선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는 회화에서 블랙 컬러의 직선 사용만을 고수해오던 몬드리안의 화법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Figure 2>에서 시작된 원색의 직선 사용은 1940년대까지 이어졌으며,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물감이 아닌 컬러 접착테이프로 바뀌었다. <Figure 3>은 뉴욕에서의 활동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활력 넘치는 뉴욕의 도시상을 삼원색의 직선으로 표현했다. 또 <Figure 4>는 『Broadway boogie woogie』로 1930년대 후반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유행하던 리드미컬한 ‘부기 우기’ 음악을 화려한 삼원색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추상의 형태로 재현한 작품이다.

삼원색과 삼무채색, 수평선과 수직선이라는 절제되고 단순한 조형 요소로 만들어진 신조형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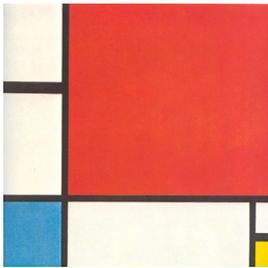


Figure 1. 『Composition with Red, Blue and Yellow』, 1930.
From Park. (2016).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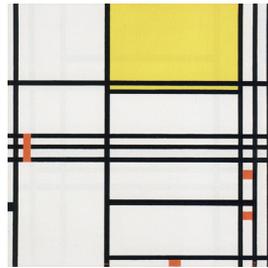


Figure 2. 『Composition No.9 with Yellow and Red』, 1939-1942.
From Park. (2016). p. 31.



Figure 3. 『New York City II』, 1942.
From Park. (2016). 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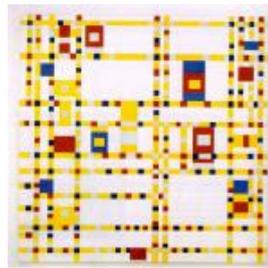


Figure 4. 『Broadway Boogie Woogie』, 1942.
From Park. (2016). p. 31.

양식은 자연을 주제로 했던 미술의 고전적이고 주관적인 형태를 완벽하게 전환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가 추구했던 건축적이고 기계적인 미의식은 회화를 넘어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건축, 가구, 산업 기기, 패션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다(Park, 2016). 특히 회화와 패션의 결합은 외부로 드러나는 작가의 표현적 특성을 새로운 표현기법으로 개발함으로써 작품 속에 내재된 작가의 정신을 패션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Jung & Kim, 2015)이 되고 있다.

이처럼 몬드리안이 일생에 걸쳐 완성한 신조형주의 회화 양식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예술이었으며, 회화에 표현된 기하학적 면분할 형태, 그리드 패턴, 강렬한 원색을 바탕으로 한 절제된 색채대비는 현재까지도 많은 국내외 디자이너들에게 풍부한 예술적 모티프로 회자되고 있다.

2) 반 뒤스부르크

반 뒤스부르크는 데 스틸 그룹의 실질적 리더이자 잡지 발행인이다. 그는 회화뿐만 아니라 스테인드글라스, 타이포그래피, 인테리어, 건축 등 실질적인 영역에서 조형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회화와 건축의 통합을 목표로 삼고 ‘디자인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확고한 미학적 신념에서 기계와 건축을 동일시했다(Park, 2016).

<Figure 5>는 그의 초기 회화로 몬드리안의 비재현적이고 순수한 작품의 형태와 유사하며, <Figure 6>은 수직, 수평선의 색면 분할이 강조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으로 색채의 명료성을 강조하는 신조형주의 일반원리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1925년 이후 <Figure 7>의 ‘역구성’ 시리즈를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화면에서 역동성을 의미하는 45도의 사선을 도입했다. 이러한 사선간의 교차는 몬드리안과는 구별되는 그리드 형태를 만들었다. 그는 사선을 통해 역동하는 기계미학 사회를 나타

내고자 하였으며, 1926년 ‘요소주의(elementalism)’를 완성시켰다. 요소주의는 회화와 건축에서 미술의 기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선, 면, 부피 그리고 색채의 구축적인 요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추상미술과 미래적 환경에 관한 그의 이론 전반을 지칭하고 있다. 그는 요소주의를 통하여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모든 원리와 경직된 구조를 해체하고 그것을 ‘근대’라는 의미 하에 변증법적으로 수립시키는 종합의 과정을 드러내려 하였다(Song, 1997).

또한 반 뒤스부르크는 실용적인 기계미학을 예술로 끌어와 데 스틸 양식의 건축 및 실내디자인에도 이를 도입시켰다. 이는 데 스틸이 추구하는 전통성에 대한 거부와 이상사회 건설에 부합했다. 그는 “수학과 재료 자체, 기계적 생산 수단의 내적 논리에 따르는 건축을 통해 현대적 삶의 개념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비형식적 기념비성’을 얻는 것이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으며, 이러한 ‘비형식적 건축’은 요소주의 건축의 구축 방식이 되었다(Doig as cited in Yoon, 2012, p. 198).

<Figure 8>은 데 스틸의 대표적인 실내 디자인인 『Cafe Aubette』의 내부로 반 뒤스부르크의 ‘역구성’ 회화를 모티프로 제작되었다. 그는 『Cafe Aubette』를 설계하는데 있어 외적으로 신조형주의의 조형성을 따랐으며, 재료는 기하학적 형태 및 구조를 표현하기에 유리한 알루미늄, 에나멜, 철,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매끄럽고 깔끔하게 제작하였다. 또 내적으로는 대중들에게 삶과 예술을 이등분 하지 않고, 이 둘을 통합하는 열린 공간을 제안하며 과거 장식적인 예술양식에서 벗어나 기능적인 이상미를 실용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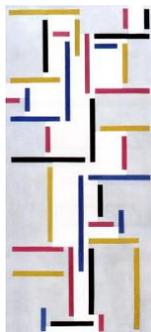


Figure 5. 『Russian Dance』, 1918.
From Park. (2016). p.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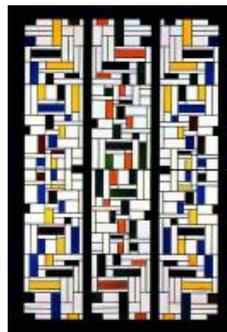


Figure 6. 『Stained-Glass Composition IV』, 1918.
From Park. (2016). p. 43.



Figure 7. 『Counter-Composition XV』, 1925.
From Park. (2016). p. 44.



Figure 8. 『Cafe Aubette』, 1928.
From Park. (2016). p. 45.

3) 리트벨트

리트벨트는 데 스틸 이미지가 강한 작업을 했던 건축가 겸 디자이너로서, 몬드리안의 ‘조형 요소 주의’ 원칙을 건축과 가구 디자인에 활용했다 (Kang & Kim, 2009). 20세기 초반 가구들은 원목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대다수였으나, 삼원색과 삼무채색 컬러로 원목을 채색하여 모더니즘적인 실내 공간을 구축하였다.

몬드리안의 ‘컴포지션’을 연상시키는 <Figure 9>의 『Red·blue chair』는 데 스틸의 조형 이론과 합리적인 재료와 방법연구에 의거하였다. 또 보다 명확한 조형표현을 위해 ‘4각 단면 3각 구축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리트벨트가 착안한 본 방식은 4각 단면의 각재 3개를 각각 X, Y, Z 축의 방향으로 통과시킨 채 나무못을 사용하여 직각으로 접합시키는 독창적인 구조법이다(Park & Kim, 2002).

<Figure 10>의 『End table』은 기하학적인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형태로 된 최소한의 색면 합판의 부재만으로 조립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End table』은 무채색 면들의 부재(部材)로 구축성을 표현하고, 등근 면과 옐로우 컬러의 선을 덧붙이는 회화적 색채 구성으로 조직되었다(Park, 2003).

<Figure 11>의 『Schroder house』는 현대 건축 발전을 대변하는 아이콘 이자 데 스틸 그룹의 총체적인 조형적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몬드리안이 데 스틸의 색채기법을 평면적인 화면에 시도한 것이라면 리트벨트는 3차원적인 공간 즉, 건축물과 가구에 적용한 것이다. 슈뢰더 하우스는 다양한 재료들을 레드, 블루, 옐로우, 화이트, 블랙의 면에 조화롭게 채색함으로써 재료 자체의 특성을 감추어 데 스틸에서 추구하려는 단순화에 성공하였다 (Jung, 2016). 슈뢰더 하우스의 구성은 1층에는 현

관, 스튜디오, 부엌을 배치하고 2층에는 거실, 침실, 작업실, 식당을 배치하였다. 건물 내부의 모든 공간은 의뢰인의 의도에 따라 전체가 개방적인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특히 창문은 넓은 판유리로 제작되어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지 않고 실내의 공간을 안에서 밖으로 확장시키는 유기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

<Figure 12>의 『Zigzag chair』는 리트벨트가 제작한 가구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 1장의 직사각형 나무 합판으로 완성시켰다. 또한 역동감이 느껴지는 사선 모양의 의자 다리는 여러 개를 쌓을 수 있게 하여 실용적이었다.

리트벨트는 현대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실용성과 기능주의를 자신의 디자인 철학으로 삼았으며, 간결한 디자인으로 이상적인 공간미를 추구하였다. 그에게 가구란 현실을 즉각적으로 체험하고 현실 자체를 바라보게 하며 생활의 진정함을 찾아 내려는 하나의 제한 요소였다(Lee, 2005). 이처럼 리트벨트는 데 스틸의 조형원리를 대량생산이 가

능한 기능적인 가구 디자인과 즉각적인 체험이 가능한 건축 디자인으로까지 적용하는데 성공하였다.

위와 같이 데 스틸을 대표하는 작가 3인의 작품 세계를 살펴 본 결과, 공통적으로 삼원색과 삼무채색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컬러 절제성, 수직선과 수평선이 일정하게 반복 직교하는 격자 모양의 그리드 그리고 점, 선, 면의 기본적인 도형 요소들을 추상적으로 조합한 기하학적 면 분할의 3가지 조형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3. 컬러 블로킹

패션전문자료사전에 따르면 컬러 블로킹의 사전적 의미는 색의 블록 구성을 말한다(color blocking, n.d). 즉, 블록은 덩어리, 여러 개로 나뉜 것들 중 한 구획이란 의미로 한 가지 색의 덩어리를 이어붙인 상태로 하여 전체를 만들어내는 방법, 또는 그러한 디자인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단순히 사각형의 컬러 블록을 조합하거나 복잡한 계단 모양으로 하는 여러



Figure 9. 『Red-blue chair』, 1919.
From Park. (2016). p. 52.



Figure 10. 『End table』, 1923.
From Park. (2016). p. 52.



Figure 11. 『Schroder house』, 1924.
From Park. (2016). p. 53.



Figure 12. 『Zigzag chair』, 1927.
From Park. (2016). p. 53.

가지로 활용 할 수 있다. 최근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컬러 블로킹의 표현 기법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신조형주의의 일반원리에 근거하여 삼원색, 삼무채색을 활용하여 절제된 컬러 배색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둘째, 데 스틸 작가들의 작품에 표현된 그리드 패턴을 원단에 직접 디지털 프린팅하거나 또는 레이저 커팅한 원단을 사용하는 형태이다. 셋째, 하나의 의상 안에 이질적인 종류의 패브릭을 패치워크 하듯이 자유롭게 조합하여 비정형적인 형태로 패브릭 블로킹(fabric blocking)하는 표현 방법으로 적용 방법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III. 컬러 블로킹 패션디자인 사례연구

1. 컬러 절제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데 스틸의 많은 작가들이 레드, 블루, 옐로우의 삼원색과 그레이, 화이트, 블랙의 삼무채색을 조형원리로 규정하고 제한된 컬러 범위 내에서 조합하여 디자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특히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데 스틸의 컬러 범주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모던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삼원색과 삼무채색을 선택적으로 컬러 블로킹 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시즌 트렌드 컬러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조화롭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Park, 2016).

<Figure 13>은 코스튬 내셔널(Costume National)의 2011년 F/W 컬렉션으로 블랙과 옐로우 두 컬러를 사용하여 절제된 컬러 블로킹과 미니멀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터틀넥 슈프트 드레스이다. <Figure 14>는 가브리엘 콜란젤로(Gabriele Colangelo)의 2013년 S/S 컬렉션으로 명암대비가 확실한 네이비와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여 단순한 수직, 수평 분할로 컬러 블로킹 된 튜브 탑 드레스이다. <Figure 15>는 안소니 바카렐로(Anthony Vaccarello)의 2015

년 S/S 컬렉션으로 화이트 컬러의 무광 소재와 블랙 컬러의 유광 소재의 대비를 나타냄과 동시에 타이포그래피를 접목시켜 컬러 블로킹을 표현하였다. <Figure 16>은 에던(Edun)의 2015년 F/W 컬렉션으로 데 스틸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레드와 블루 컬러를 사용하고, 삼무채색에 해당하는 화이트 컬러를 수직, 수평으로 분할하였다. 직교하는 패브릭들의 박음선이 외부로 노출되도록 의도하였으며, 이러한 박음선은 마치 리트벨트의 슈뢰더 하우스의 건축처럼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는 디자이너의 의도로 보여진다. <Figure 17>은 2015년 F/W 쿠만 유혜진(Kumann Yoo Hye Jin)의 컬렉션으로 데 스틸의 삼무채색 중에서 블랙과 화이트 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고, 서브 컬러로 머스타드 컬러를 도입하여 코트의 칼라, 소매, 몸통 부분에 강렬한 컬러 대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18>은 2016년 F/W 폴 스미스(Paul Smith) 컬렉션으로 블랙 컬러 바탕의 테일러드 수트 왼쪽에 레드 컬러의 수직선으로 컬러 블로킹함으로써 몬드리안의 회화에서 나타난 절제되고 명확한 색면 분할을 표현하고 있다. <Figure 19>는 쿠레쥬(Courrèges)의 2016년 F/W 컬렉션으로 레드, 블루 컬러를 사용하여 색면 분할하고, 화이트 컬러의 바디 수트를 이너웨어로 착용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주었다.

<Figure 20>은 2017년 S/S 프로엔자슐러(Proenza Schouler) 컬렉션으로 블랙, 화이트, 블루로 데 스틸의 조형원리와 같은 제한된 컬러를 사용하되 자연스럽게 나뉘어지는 플리츠 패브릭을 사용하여 역동적인 사선 분할에 율동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컬러 절제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에서는 데 스틸 작가들의 작품에서 주로 윤곽선의 역할을 하던 블랙 컬러가 메인 컬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삼원색과 삼무채색 외 컬러를 도입한 것은 시즌 트렌드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Figure 13. 코스튬 내셔널, 2011 F/W. From Park. (2016). p. 60.



Figure 14. 가브리엘 콜란젤로, 2013 S/S. From SPRING 2013 READY-TO-WEAR Gabriele Colangelo. (2013). <http://www.vogue.com>



Figure 15. 안소니 바카렐로, 2015 S/S.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Anthony Vaccarello. (2015). <http://www.vogue.com>



Figure 16. 에던, 2015 F/W. From Park. (2016). p. 62.



Figure 17. 쿠안 유혜진, 2015 F/W. From Park. (2016). p. 63.



Figure 18. 폴 스미스, 2016 F/W. From FALL 2016 READY-TO-WEAR Paul Smith. (2016). <http://www.vogue.com>



Figure 19. 쿠레쥬, 2016 F/W. From FALL 2016 READY-TO-WEAR Courrèges. (2016a). <http://www.vogue.com>



Figure 20. 프로엔자슐러, 2017 S/S.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Proenza Schouler. (2017). <http://www.vogue.com>

2. 그리드를 응용한 컬러 블로킹

몬드리안과 반 뒤스부르크의 회화, 그리고 리트 벨트의 가구 디자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데 스틸 양식의 주된 패턴양식은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인 그리드, 즉 격자무늬라고 할 수 있다. 격자무늬는 가로와 세로의 직선이 같은 간격으로 교차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컬러 블로킹으로 도형미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장식을 절제하려는 시도로 보

인다(Park, 2016).

<Figure 21>은 프라다(Prada)의 2011년 F/W 컬렉션으로 벨트가 제 허리선보다 아래에 위치한 민소매의 로우 웨이스트(low waist) 실루엣의 드레스이다. 벨트 위쪽으로는 일정한 간격의 그리드 패턴이 프린팅 되었으며, 벨트 아래쪽으로는 위쪽보다는 큰 그리드 패턴의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22>는 샤넬(Chanel)의 2013년 S/S 컬렉션으로

로 핑크와 화이트 투톤의 그리드 패턴으로 구성된 투피스이다. 어깨선이 둥근 코쿤 실루엣으로 여성미를 더하고 있으며, 블라우스 소매와 스커트 하단에는 속이 비치는 시스루 소재를 매치하여 미니멀한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Figure 23>은 끌로에(Cholé)의 2014년 Pre-fall 컬렉션으로 드레스에 모노톤의 그리드 패턴이 프린팅 되어 있다. 넓은 간격의 그리드 패턴은 시각적으로 심플하고 모던하게 표현되고 있다. <Figure 24>는 토즈(Tod's)

의 2014 F/W 컬렉션으로 화이트 컬러의 퍼 소재를 바탕으로 머플러, 코트, 팬츠에 모두 균일한 간격의 넓은 그리드 패턴을 표현하였다. <Figure 25>는 발망(Balmain)의 2015년 S/S 컬렉션으로 블루 컬러의 상의는 검은색의 굵은 그리드 패턴으로 컬러 블로킹하였다. 하의는 H라인의 스커트로 상의와 같은 검은색 그리드 패턴을 컬러 블로킹하되, 반투명 소재를 사용하여 이너웨어 팬츠가 비치도록 디자인하였다. <Figure 26>은 아크리스(Akris)의



Figure 21. 프라다, 2011 F/W.
From FALL 2011
READY-TO-WEAR Prada. (2011).
<http://www.vogue.com>



Figure 22. 샤넬, 2013 S/S.
From Park. (2016). p. 68.



Figure 23. 끌로에, 2014 Pre-fall.
From Park. (2016). p. 69.



Figure 24. 토즈, 2014 F/W.
From FALL 2014
READY-TO-WEAR Tod's. (2014).
<http://www.vogue.com>



Figure 25. 발망, 2015 S/S.
From SPRING 2015
READY-TO-WEAR Balmain.
(2015).
<http://www.vogue.com>



Figure 26. 아크리스, 2015 S/S.
From Park. (2016). p. 70.



Figure 27. 쿠레쥬, 2016 F/W.
From FALL 2016
READY-TO-WEAR Courrèges.
(2016b).
<http://www.vogue.com>



Figure 28. 아이스버그, 2016 F/W.
From FALL 2016
READY-TO-WEAR Iceberg.
(2016).
<http://www.vogue.com>

2015년 S/S 컬렉션으로 아우터와 이너웨어 모두 화이트 컬러로 통일하고, 정사각형의 그리드 패턴으로 레이저 커팅 된 원단이 미니멀 하면서도 과감한 시스루 스타일을 보여준다. <Figure 27>은 꾸레주의 2016년 F/W 컬렉션으로 화이트 컬러의 바탕 위에 블랙 컬러의 얇은 그리드 패턴이 프린팅 되어있으며, 수직과 수평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작은 도트 무늬를 배치하여 1960년대 스타일의 발랄하고 미니멀한 스킨걸 룩을 표현하고 있다. <Figure 28>은 아이스버그(Iceberg)의 2016년 F/W 컬렉션으로 모노톤의 그리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네크라인과 소매에는 각각 블랙, 레드 컬러를 매치하여 데 스틸의 단순 명료한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그리드를 응용한 컬러 블로킹은 과거 데 스틸 작가들이 추구하였던 바와 같이 일정한 간격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분할을 활용하여 직선적인 비례미를 꾸준히 탐구하고 있다. 또 다양한 패브릭을 응용하여 표현 방법이 다소 평면적이었던 데 스틸의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이고 트렌디한 그리드 패턴의 표현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3.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데 스틸 작가들은 최소한의 선과 색면 분할에 의한 기하학적 형태만으로 현대적이고 추상적인미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신조형주의의 출발점을 입체파로 두었던 데 스틸 작가들은 입체파 화가들이 자연과 인물을 기하학적 도형인 큐브 형태로 단순화한 것을 분석하여 평면 형태로 환원하였고, 이를 다시 해체하여 점, 선, 면의 기본적인 회화 요소로 분해하여 완전한 기하학적 추상에 도달했다(Park, 2016). 특히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데 스틸의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비정형적인 디자인이 자주 시도되고 있는데, Cho and Park(2016)의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에서 있어서의 비정형은 형태에 있어서 비례, 대칭, 균형의 기본 개념과 조형미를 허물고 있으며 소재에 있어서도 재료의 고정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p. 118).

<Figure 29>는 펜디(Fendi)의 2013년 S/S 컬렉션으로 다채로운 컬러의 레더 소재를 사용하여 기하학적인 면 분할과 커팅을 활용한 대칭미가 표현되고 있다. <Figure 30>은 록산다(Roksanda)의 2014년 F/W 컬렉션으로 네크라인 중앙을 기점으로 좌, 우



Figure 29. 펜디, 2013 S/S.
From Park. (2016). p. 76.



Figure 30. 록산다, 2014 F/W.
From Park. (2016). p. 76.



Figure 31. 파우스토 푸글리시,
2014 F/W.
From Park. (2016). p. 77.



Figure 32. 프로엔자슐러, 2014
F/W.
From FALL 2014
READY-TO-WEAR Proenza
Schouler. (2014).
<http://www.vogue.com>



Figure 33. 마르니, 2016 F/W.
From FALL 2016
READY-TO-WEAR Marni. (2016).
<http://www.vogue.com>



Figure 34. 토리버치, 2016 F/W.
From FALL 2016
READY-TO-WEAR Tory Burch.
(2016).
<http://www.vogue.com>



Figure 35. 베르사체, 2017 S/S.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Versace.
(2017).
<http://www.vogue.com>



Figure 36. 나임 칸, 2017 S/S.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Naeem Khan.
(2017).
<http://www.vogue.com>

를 비정형적인 형태로 디자인 하여 위트있는 디자인과 기하학적 면 분할을 표현하고 있다. <Figure 31>은 파우스토 푸글리시(Fausto Puglisi)의 2014년 F/W 컬렉션으로 강렬한 삼원색과 블랙 컬러로 구성된 바디 슈트이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컬러 블로킹으로 역동적인 사선과 정적인 직선의 색면 분할이 돋보인다. <Figure 32>는 프로 엔자술러의 2014년 F/W 컬렉션으로 낮은 채도의 레드, 블랙 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되 네크라인 중앙을 기점으로 스웨이드, 레더, 폴리에스터 등 다양한 패브릭 블로킹으로 비정형적이고 기하학적인 컬러 블로킹을 표현하고 있다. <Figure 33>은 마르니의 2016년 F/W 컬렉션으로 레드, 옐로우, 블루, 그린 외 다채로운 컬러들이 리드미컬하고 자유롭게 컬러 블로킹 된 원피스로 기하학적이고 조형적인 면 분할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4>는 토리버치(Tory Burch)의 2016년 F/W 컬렉션으로 셔츠의 양쪽 소매는 서로 비일관적인 기하학적 도형들의 색면 분할로 컬러 블로킹 되었으며, 스커트는 동일한 간격의 세로 스트라이프로 다채로운 컬러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35>는 베르사체(Versace)의 2017년 S/S 컬렉션으로 단순한 색

면 분할로 보이지만, 상체부와 하체부에 사선으로 각각 컷팅하고, 원형의 버튼으로 패턴들을 연결하여 마치 해체되었다가 재조립 된 듯한 기하학적 컬러 블로킹을 표현하고 있다. <Figure 36>은 나임 칸(Naeem Khan)의 2017년 S/S 컬렉션으로 추상적인 도형들로 색면 분할되었으며, 우측 다리의 라인을 따라 길게 슬릿 효과를 주어 시각적으로 바디 프로포션이 길어 보이게 함과 동시에 관능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은 대칭적, 비대칭적 면 분할의 형태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데 스틸의 조형성이 투영된 추상적인 도형들의 조합과 이질적인 패브릭을 접목한 컬러 블로킹이 시도되고 있다. 엄격했던 과거의 데 스틸 양식에서는 직선의 사용만이 강조되었으나,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는 곡선과 직선의 사용에 제한점을 두지 않고 디자이너들의 개성에 따라 조화롭게 활용되고 있다.

IV. 데 스틸의 조형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패션디자인

1. 디자인 의도 및 방법

데 스틸은 20세기 초반 기계문명시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새로운 조형양식이다. 이는 기하학적이고 평면적인 조형 요소와 절제된 컬러를 바탕으로 하는 완전한 추상 양식으로써 명확하고 객관적인 형태의 독자적인 조형성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데 스틸은 한 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패션을 비롯한 많은 디자인 영역에 걸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디자인의 지침으로 재해석 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데 스틸의 조형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실용성을 표현한 신조형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활용하였다. 또 데 스틸 작가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삼원색, 삼무채색은 선택적으로 사용되 시즌 트렌드 컬러를 추가하였다. 또한 선과 색면 분할에 있어서는 수직선과 수평선, 대각선, 평면 도형들을 기호적인 모티프로 활용하여 미니멀한 실루엣에 감각적인 컬러 블로킹을 중점으로 조화롭게 디자인 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III장 컬러 블로킹 패션디자인 사례에서 유형별로 분류한 데 스틸의 세가지의 조형적 특성인 컬러 절제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1점, 그리드를 응용한 컬러 블로킹 1점, 그리고 최근 4대 패션 컬렉션 및 내셔널 브랜드, SPA 브랜드에서 두드러지게 발표되고 있는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작품은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여 2점으로 구성하여 총 4점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자인 해설

1) 작품 I

작품 I 은 관능적인 슬립 드레스로 컬러 절제성

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디자인이다. 반 되스부르크의 역구성을 모티프로 가져온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사선구도를 사용하였다. 컬러는 데 스틸의 삼원색 중에서 레드, 블루 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하고 2017년 팬톤에서 트렌드 컬러로 선정된 그린 컬러를 추가하였다. 전체적인 소재는 X라인의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강조하기에 용이한 광택 있는 폴리사틴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신축성 있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메탈릭 골드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여 볼드한 사선 라인으로 컬러 블로킹 하였다. 드레스의 뒷면은 투톤으로 컬러를 절제하여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제작하였다.

2) 작품 II

작품 II는 미니 드레스로 그리드를 응용한 컬러 블로킹 디자인으로 몬드리안의 회화에서 표현된 삼원색과 삼무채색, 수직선과 수평선의 직교를 조형적 요소로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1960년대 미니멀한 스위트 드레스를 반영하였고, 데 스틸의 삼원색 중 레드와 블루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옐로우의 변형으로 오렌지 컬러를 사용하였다. 삼무채색 중에서는 블랙, 화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서브 컬러로 그린 컬러를 추가하였다. 또 그리드가 프린팅 된 원단을 사용하여 전체의 색면들이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컬러 블로킹 하였다. 솔리드 원단과 프린팅 원단을 분할하는 라인은 인조가죽 소재를 사용하였고, 스커트 부분은 좌우의 길이를 비대칭으로 디자인하여 자유롭고 캐주얼한 감성을 가미하였다.

3) 작품 III

작품III는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디자인으로 인조가죽을 소재로 한 오버 사이즈의 칼라와 포켓이 장식적으로 활용된 롱 코트이다. 앞면은 삼무채색 중에서는 그레이와 블랙을, 삼원색 중에서는 레드 컬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색면이 좌우 대조되도록 컬러 블로킹 하였

다. 밑의 좌측 부분에는 인조 스웨이드 소재의 스카이 블루, 베이지 컬러 원단을 사용하여 사진으로 컬러 블로킹 하고 우측은 스카이 블루 컬러로 수평 분할하였다. 또 앞면의 사선분할 라인은 뒷면과 대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코트의 뒷면은 그레이, 레드 컬러로 수직 분할하고 카키와 블랙 컬러로 각각 면적을 다르게 하여 수평 분할하였다. 소매의 바깥부분에는 베이지 컬러로 컬러 블로킹 하였는데, 좌우 크기를 각각 다르게 매치 하여 비대칭적 조형성과 기하학적인 색면 분할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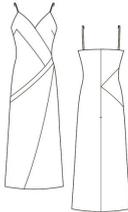
4) 작품 IV

작품 IV는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디자인이다. 전체 실루엣은 박시한 H라인으로

제작하였다.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은 입체적인 칼라, 오른쪽은 평면적인 노칼라로 비대칭으로 디자인 하였다. 여밈은 칼라와 동일한 인조 가죽 소재의 원단으로 랩(wrap) 형식으로 묶을 수 있게 하였다. 앞면의 좌측 부분에는 베이지 컬러의 하이미어 원단과 브라운 컬러의 인조가죽을 수평으로 면 분할하여 패브릭 블로킹하였고, 우측 역시 수평으로 같은 면적의 베이비 핑크의 인조가죽과 베이지 컬러의 하이미어 원단을 컬러 블로킹 하였다. 뒷면의 등판은 소매부분과 머스타드 컬러가 수평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고, 허리선 아래로는 앞면에 사용된 베이비 핑크와 브라운 컬러의 인조가죽 원단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면 분할하였다.

총 4가지의 작품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Table 1).

Table 1. 데 스타일의 조형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작품 총정리.

분류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표현 방법	컬러 절제성	그리드	기하학적 면분할	기하학적 면분할
아이템	슬립드레스	미니드레스	롱코트	랩코트
소재	폴리우레탄, 폴리세틴	레이온, 폴리에스터, 인조가죽	울테리, 인조가죽, 인조스웨이드	울테리, 하이미어, 인조가죽
컬러	레드, 네이비, 딥그린, 메탈릭 골드	그린, 레드, 네이비, 오렌지, 블루, 블랙, 화이트	레드, 그레이, 카키, 화이트, 베이지, 스카이블루	머스타드, 브라운, 베이비핑크, 아이보리, 화이트, 카키
도식화				
디자인 실물 앞				

분류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디자인 실물 뒤				

V. 결론

산업혁명 이후 예술 양식에서도 급진적인 과학화가 중시되던 20세기 초반에 발달한 데 스틸은 객관성, 보편성, 절제성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한 기하학적 추상 예술 운동이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추구했던 데 스틸 그룹은 신조형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작가 중심의 주관적인 예술 양식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데 스틸 그룹은 모든 사물의 형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형태로 단순화하였다. 이들은 삼원색과 삼무채색, 수직선, 수평선, 사선, 직사각형 등의 기본적인 조형 요소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모던한 디자인을 만족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데 스틸의 조형성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로 데 스틸의 개념과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데 스틸의 대표 작가로 몬드리안, 반 뒤스부르크, 리트벨트 3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컬러 블로킹 기법으로 연계되는 데 스틸의 조형성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2011년 S/S 시즌부터 2017년 S/S 시즌까지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고, 해당 시기의 국내외 패션 컬렉션지, 인터넷 자료 수집, DVD 시청 등을 통해 국내외 컬렉션에 반영된 컬러 블로킹 패션디자인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컬러 절제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그

리드를 응용한 컬러 블로킹,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의 세 가지 조형적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컬러 절제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은 신조형주의의 색채 조형 원리에 따라 삼원색과 삼무채색의 제한된 컬러를 균형 있게 조합하여 디자인하였다. 특히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데 스틸의 제한된 컬러 외에도 시즌 트렌드 컬러를 추가하여 컬러 범주를 확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극도로 감축하여 미니멀하게 컬러 블로킹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그리드를 응용한 컬러 블로킹은 가로와 세로의 직선이 동일한 간격으로 교차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컬러 블로킹으로 표현된다. 이는 수직선과 수평선의 직교구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장식성을 없애려는 시도로써, 데 스틸의 주요 작가 중에서도 특히 몬드리안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조형 방법이다.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수직과 수평을 응용한 비례와 균형을 꾸준히 탐구함과 동시에 데 스틸의 직선적인 조형성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프린팅 원단과 레이저 커팅을 접목하여 트렌디한 그리드 패턴의 표현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은 데 스틸 작가들이 선과 색면 분할에 의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추상적인 도형미를 표현하고자 했

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대 패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하학적 면 분할은 크게 대칭, 비대칭의 면 분할로 분류되며 여기에 이질적인 패브릭 블로킹이 선보여지고 있다.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즌마다 지속적으로 변주되고 있으며, 직선과 곡선 사용에 있어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영속적인 탐구 대상이 되고 있다.

위에서 도출한 세 가지의 데 스틸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컬러 블로킹 기법을 접목하여 실용적이고 모던한 감성의 여성복 컬러 블로킹 디자인 4벌을 제시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컬러 절제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작품 1점, 그리드를 응용한 컬러 블로킹 작품 1점, 기하학적 면 분할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작품 2점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20세기 회화, 건축, 실내디자인을 중심으로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데 스틸의 조형성이 21세기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컬러 블로킹 기법으로 연계되어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데 스틸의 단순명료하고 일관적인 표현 양식의 한계를 넘어, 데 스틸의 조형성을 응용한 컬러 블로킹 패션디자인에서는 다양한 선과 컬러, 소재의 균형과 조화로 풍부한 예술적 감성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데 스틸과 컬러 블로킹에 관한 지속적인 학술연구 및 작품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보다 감각적인 표현 방법이 접목된 컬러 블로킹 룩으로 발전되어지기를 바란다.

Reference

- Cho, Y. S., & Park, S. H. (2016). A study on informality in modern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2), 113-135. doi:10.18652/2016.16.2.8
- color blocking. (n.d.). *NAVER Encyclopedia*. Retrieved January 15, 2016,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6382&cid=42822&categoryId=42822>
- FALL 2011 READY-TO-WEAR Prada. (2011). *VOGUE*. Retrieved March 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ready-to-wear/prada/slideshow/collection#21>
- FALL 2014 READY-TO-WEAR Proenza Schouler. (2014). *VOGUE*. Retrieved March 13,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proenza-schouler/slideshow/collection#27>
- FALL 2014 READY-TO-WEAR Tod's. (2014). *VOGUE*. Retrieved March 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tod-s/slideshow/collection#2>
- FALL 2016 READY-TO-WEAR Courrèges. (2016a). *VOGUE*. Retrieved December 8,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courreges/slideshow/collection#34>
- FALL 2016 READY-TO-WEAR Courrèges. (2016b). *VOGUE*. Retrieved December 8,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courreges/slideshow/collection#32>
- FALL 2016 READY-TO-WEAR Iceberg. (2016). *VOGUE*. Retrieved December 8,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iceberg/slideshow/collection#13>
- FALL 2016 READY-TO-WEAR Marni. (2016). *VOGUE*. Retrieved December 12,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marni/slideshow/collection#18>
- FALL 2016 READY-TO-WEAR Paul Smith. (2016). *VOGUE*. Retrieved December 8,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paul-smith/slideshow/collection#1>
- FALL 2016 READY-TO-WEAR Tory Burch. (2016). *VOGUE*. Retrieved December 12,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tory-burch/slideshow/collection#3>
- Jung, I. K. (2016). *몬드리안의 작품을 응용한 인테리어 패브릭 디자인* [Interior fabric design applying Mondrian 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ung, J. E., & Kim, H. K. (2015). A study on fashion design with application of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 Focused on Franz Kline's paint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5(4), 1-15. doi: 10.18652/2015.15.4.1
- Kang, H. M., & Kim, H. K. (2009). A study of fashion design with the motif on modern abstract painting.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9(1), 61-75.
- Lee, H. J. (1995). A Study on the formal language of De Stijl movement on modern design. *가정문화논총*, 9(-), 75-114.
- Lee, J. E. (2005).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 application of G. T. Rietveld's furniture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 Mondrian, P. (2008). *몬드리안의 방: 신조형주의, 새로운 삶을 위한 예술* [The new art, the new life: The collected writings of Piet Mondrian] (Jeon, H. S., Trans.). Paju: Youlhwadang Publisher.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Neo Plasticism. (n.d.). *Montlyart*. Retrieved January 20, 2016, from <http://monthlyart.com/encyclopedia/%EC%8B%A0%EC%A1%B0%ED%98%95%EC%A3%BC%EC%9D%98>
- Park, H. J. (2016). *A study on color blocking fashion design that applied the formativeness of De Stij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S. J. (2011). *Vertical and horizontal study of Mondrian's artwor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uwon.
- Park, W. C. (2015). *추상, 세상을 뒤집다* [Abstract, overturn the world]. Seoul: Jaewon Publisher.
- Park, Y. K., & Kim, H. C. (2002). A study on Rietveld's space construction system: Focused on furniture with extensional crossing-connection in 1918-1924.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8(12), 143-151.
- Park, Y. K. (2003). A study on the form of spatial expression shown in Rietveld's works: Focused on comparing with Mondrian's works.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40, 68-75.
- Song, Y. S. (1997). *Theo van Doesburg's elementarism and its architectural appl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PRING 2013 READY-TO-WEAR Gabriele Colangelo. (2013). *VOGUE*. Retrieved March 1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ready-to-wear/gabriele-colangelo/slideshow/collection#28>
- SPRING 2015 READY-TO-WEAR Anthony Vaccarello. (2015). *VOGUE*. Retrieved March 1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anthony-vaccarello/slideshow/collection#38>
- SPRING 2015 READY-TO-WEAR Balmain. (2015). *VOGUE*. Retrieved March 10,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balmain/slideshow/collection#4>
- SPRING 2017 READY-TO-WEAR Naeem Khan. (2017). *VOGUE*. Retrieved December 14,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naeem-khan/slideshow/collection#1>
- SPRING 2017 READY-TO-WEAR Proenza Schouler. (2017). *VOGUE*. Retrieved January 3,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proenza-schouler/slideshow/collection#4>
- SPRING 2017 READY-TO-WEAR Versace. (2017). *VOGUE*. Retrieved December 12, 2016,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versace/slideshow/collection#34>
- Yoon, J. H. (1994). *데 스틸 운동과 건축* [De Stijl movement and architecture]. Seoul: Sejinsa.
- Yoon, N. J. (2010). The 'plastic architecture' of De Stijl, its utopian vision. *The Journal of Art Theory & Practice*, 9(-), 151-170.
- Yoon, N. J. (2011). *추상미술과 유토피아* [Abstract art and utopia]. Paju: Hangilart.
- Yoon, N. J. (2012). *추상미술 읽기* [Read abstract art]. Paju: Hangilart.

A Study on Color Blocking Fashion Design that Applied the Formativeness of De Stijl

Park, Hyun Jung · Kim, Hye Kyung⁺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Graduate School of Fashions,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De Stijl is admitted as the influential art trend with the opening of the machine and industrial age in the 20th century, and is expanded not only into painting but also into various fields such as furniture, architecture, crafts, sculpture, and fashion. De Stijl developing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the times seeking practical design is continuously connected as color blocking technique up to now, and has attained a sure footing as the new fashion trend by admitting a formatively aesthetic valu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four contemporary designs of women's clothing by applying the color blocking technique to formativeness of De Stijl.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De Stijl drawn based on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a concept of De Stijl, representative artists, works, and case analysis of color blocking fashion design, include three characteristics such as color blocking applying color moderation, color blocking applying grid, and color blocking applying the geometrical split face. Expression styles of color blocking applying color moderation are a style using the three primary colors and three achromatic colors selectively and a trend adding a season trend color newly or changing and coloring within a range of color with a similar tone. Color blocking applying grid expresses proportional beauty with simple intersection and repeti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as same as in the past, but frequently tries to graft various fabrics according to season trend. Color blocking applying the geometrical split face is expressed by symmetrical or asymmetrical split color face with a combination of pure graphic primitives such as dot, line, face, and free fabric blocking technique. Through this study, the formative principle of De Stijl is reinterpreted as trendy fashion design by connecting formativeness of De Stijl directly to color blocking clothing.

Key words : De Stijl, formativeness, color blocking, fabric blocking